

'MLB 36승' 에릭 라우어 영입...KIA, 마운드 강화



최고 151km 강속구·낙차 큰 커브 등 강점 정해영 1군 콜업...운영철도 재활 훈련 돌입

KIA 타이거즈가 우승 질주를 위해 마운드를 재정비했다. 메이저리그에서 36승을 기록한 에릭 라우어(사진)를 새 전력으로 영입했고,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정해영을 콜업했다.

KIA가 소문이 무성했던 '빅리거' 에릭 라우어(29·Eric Lauer·좌투우타)에게 선발 한 자리를 맡겼다. KIA는 6일 라우어와 계약금 5만 달러, 연봉 30만 달러 등 총액 35만 달러에 계약을 했다.

라우어는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120경기에 나와 36승 37패 2홀드를 기록한 검증된 선수다. 특히 2022시즌에는 밀워키 브루어스 소속으로 선발로 29경기에 나와 11승을 수확하기도 했다.

메이저리그 통산 120경기(선발 112경기)에 나온 그는 4.3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올 시즌에는 휴스턴 애스트로스 산하 트리플A에서 마이너리그 19경기(선발 등판 16경기)에 나와 75.1이닝을 던졌고, 5.26의 평균자책점과 4승 5패를 기록했다.

190cm의 큰 키에서 내리꽂는 최고 151km의 빠른공을 바탕으로 낙차 큰 커브로 타이밍을 뺏는 그는 슬라이더와 체인지업도 구사한다.

KIA는 올 시즌 풀타임 빅리거 이력을 가진 월 크로우를 영입하면서 제임스 네일과 외국인 원투펀치를 구성했다. 크로우는 8경기에 나와 3.57의 평균자책점으로 5승을 올렸지만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KIA는 크로우의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로 캡 알드레드를 선택했지만 '극과 극'의 피칭으로 고민을 남겼다. LG를 상대로는 2경기에서 12.2이닝을 소화하면서 자책점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두산과의 두



차례 맞대결에서는 13실점을 하면서 15.95의 평균자책점을 찍었다.

토종 좌완 선발 이의리와 운영철도 연달아 부상을 당하는 등 KIA는 1위 질주에도 마운드 고민을 이어왔다.

결국 KIA는 크로우와 알드레드를 5일 웨이버 공시하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KIA Tigers'를 써 놓으면서 한국행을 예고했던 라우어와의 계약을 발표했다.

5일 입국해 6일 미디어 테스트를 진행한 라우어는 7일 불펜 피칭 뒤 KBO 데뷔전 날짜를 조율하게 된다.

이범호 감독은 "7일 불펜 피칭을 잡아 놓았다. 불펜 피칭 지켜보고 난 뒤에 이야기를 나누고 등판 날짜를 정하겠다. 올리는 게 급한 상황이지만 최상의 몸상태에서 던질 수 있게 확인해야 한다"며 "좋은 투수지만 새 리그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 등판시켜야 한다. 1선발 정도의 선수가 왔으니까 시차 적응, 컨디션 등을 보고 완벽하게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투수 한 명이 정규리그 우승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발진에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 좋은 투수가 왔다. 좋은 모습 보여주면 선발진에 힘을 더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범호 감독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던 정해영의

복귀도 확정했다.

어제 통증으로 6월 23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정해영은 재활을 거친 뒤 퓨처스리그에서 3경기를 소화하며 몸상태를 점검했다. 정해영은 세 번째 등판이었던 4일 KT전에서는 1이닝을 던지면서 17개의 공으로 4타자를 상대했다. 이날 정해영의 직구 최고 구속은 145km(평균 142km)를 기록했다. 정해영은 슬라이더, 포크볼도 테스트했다.

이범호 감독은 "퓨처스 경기에서도 144-5km가 나왔으니 1군에서는 더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몸상태가 완벽하다고 해서 올렸다"며 "몇 경기는 6-7회 앞에서 부담이 적은 상황에서 던지게 해서 체크하겠다. 괜찮다고 생각되면 마무리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척추 피로 골절로 재활군이 됐던 운영철도 워밍업을 시작했다.

지난주 합병에 합류한 운영철은 6일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재활 훈련을 진행했다. 운영철은 7일에도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하면서 복귀를 위한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역대급 폭염에...프로야구 일요일·공휴일 6시 '플레이 볼'

8월 한달...고척경기는 그대로

이상 기후가 KBO리그 경기 시간을 바꿨다. KBO가 6일 '최근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되는 혹서기 기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8월 일요일, 공휴일 경기 시작 시간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18·25일 일요일 경기와 광복절인 15일 공휴일 경기 개시 시간이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변경된다.

고척스카이돔에서 예정된 15일 KIA-키움전과 25일 LG-키움전은 예정대로 각각 오후 5시와 2시에 진행된다.

이번 변경은 폭염 특보가 발령되는 등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선수, 관중, 현장 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앞서 지난 2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예정됐던 LG-롯데전이 폭염으로 열리지 못했다. 프로야구 역사상 첫 폭염취소다.

4일에는 울산은 물론 키움과 두산의 경기가 준

비됐던 잠실에서도 폭염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KBO는 지난 2015년 '하루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기를 취소할 수 있다'는 폭염 규정을 제정했다.

KBO는 안전하고 원활한 리그 운영을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상 기후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 세분화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PGA 플레이오프 티켓 잡아라

윈덤 챔피언십 8일 시작...이경훈·김성현 출격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진출 선수를 가리기 위한 마지막 정규대회 윈덤 챔피언십이 8일(한국시간) 시작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세지필드 컨트리클럽(파70·7131야드)에서 나흘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페덱스컵 포인트 순위 70위 안에 들기 위한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포인트 확보가 시급한 한국 선수는 이경훈(사진)과 김성현이다.

이경훈은 2주 전 3M 오픈에서 시즌 세 번째 톱 10에 들었지만 페덱스컵 포인트 398점으로 99위에 머물렀다.

3M 오픈에서 첫 탈락한 김성현은 342점으로 페덱스컵 순위 110위로 밀렸다.

60~70위 선수들의 점수가 600점대인 것을 감안하면 이경훈과 김성현은 우승자에게 500점을 주는 윈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거나 상위권에 들어야 플레이오프 진출을 바라볼 수 있다.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된 임성재와 김시우는 다소 느긋하지만,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까지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점수를 벌어야 한다.

임성재는 1883점을 쌓아 9위, 김시우는 1168점으로 36위다.

이번 대회에는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던 스코티

세플러, 잰더 쇼플리(이상 미국),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등 톱 랭커들이 출전하지 않는다.

역시 올림픽에 출전했던 김주형과 안병훈도 휴식을 취한다.

올림픽 출전 선수로는 세인 라우리(아일랜드)가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페덱스컵 순위 10위인 라우리와 함께 15위인 악사이 바티아(미국)도 출전해 우승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PGA 투어 플레이오프는 15일 개막하는 세인트 주드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BMW 챔피언십, 투어 챔피언십으로 이어진다.

첫 대회인 세인트 주드 챔피언십에는 페덱스컵 순위 70위까지 출전한다. BMW 챔피언십은 50위, 투어 챔피언십은 30위까지 출전 선수를 줄인 뒤 PGA 투어 시즌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연합뉴스

전남 장애인 배드민턴 대표팀, 파리 패럴림픽 준비 끝



유수영



제7회 경기도지사배 전국장애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권현아(왼쪽)와 정겨울이 복식 경기를 치르는 모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권현아·유수영·정겨울 전국대회서 금3·은1·동1 획득

전남 소속 장애인 배드민턴 대표팀이 2024 파리 패럴림픽을 앞두고 국내 대회에서 활약하며 기량을 점검했다.

장애인 배드민턴 국가대표 권현아·유수영·정겨울(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최근 안전 상륙수체육관에서 치러진 '제7회 경기도지사배 전국장애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한국 여자 휠체어 배드민턴의 간판이라 불리는 권현아는 풀리드로 진행된 WH1 여자 단식에서 김승숙(대구도시개발공사)을 상대로 2-1승, 강정금(제주특별자치도청)에 2-0 승을 겨두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WH2 정겨울과 함께 출전한 여자복식에서 대구의 김승숙-김대영 조와 제주의 강정금-김연심 조를 각각 2-0으로 압승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환상의 호흡' 권현아와 정겨울은 지난 2023년 브라질 대회와 2022년 두바이 대회 여자복식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다.

정겨울은 WH2 여자 단식에서 제주 김연심과 부산 이선애를 각각 2-0으로 이기며 금메달을 따냈다.

유수영은 WH2 남자 단식 조별 예선에서 울산 김근해, 대전 한갑수, 경기 최영재, 강원 이재원을 모두 2-0으로 꺾고 4강에 올랐다.

그는 4강에서 만난 김경훈(울산중구청)을 2-0으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지만 김정준(대구도시개발공사)에 0-2로 패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WH1 진기범(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남자복식 조별 예선에서 2승 1패를 기록하며 준결승에 오른 유수영은 최정만-김정준(대구도시개발공사)에 1-2로 패해 이상삼-박해성(울산중구청)과 공동 3위에 올랐다.

심재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배드민턴 선수단 감독은 "평소 선수들에게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다. 대표팀 합류 전 권현아 선수가 부상으로 훈련을 잠시 중단했었다. 가장 중요한 건 선수의 건강이기 때문에 무사히 별 탈 없이 다녀오길 바란다"라며 "패럴림픽이래 4년에 한 번 오는 기회에 우리 선수들이 세 명이나 출전할 수 있게 돼 영광스럽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세계 무대에서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UBUNTU : 장원석·박일광

일시 : 2024-07-12(금) ~ 2024-08-1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8월)

일시 : 2024-08-03(토) ~ 2024-08-31(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8.8.(목)-9.(금) 오후 5시 여름기획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장원석 UBUNTU 박일광

2024. 7. 12(금) - 8. 11(일)

광주예술의전당